

2020년 3월 31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경기침체 우려 불구 코로나 수혜 업종 상승 주도 대형 기술주, 제약 바이오 상승 Vs. 항공, 호텔, 에너지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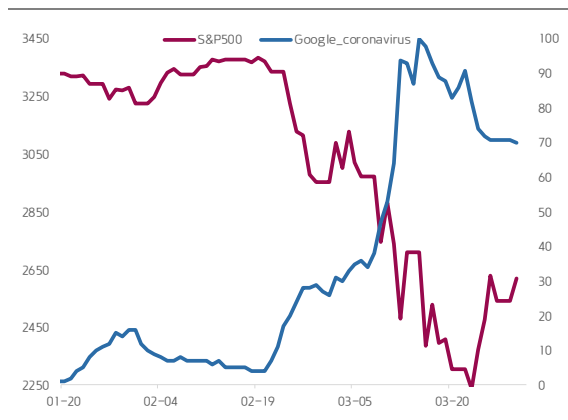
미 증시 특징: 극명하게 엇갈린 종목 장세

미 증시는 4월 30일까지 사회적 거리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상승. 코로나로 인한 경기 위축 가능성이 높지만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가 지수 상승을 불러온 것으로 추정. 그러나 상품과 외환, 채권시장은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위험 회피 심리가 높아 전반적인 금융시장 상황이 낙관적이지 못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후 수혜 업종과 종목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다우 +3.19%, 나스닥 +3.62%, S&P500 +3.35%, 러셀 2000 +2.33%)

미국의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15 만명을 넘어서는 등 증가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는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을 4월 30일까지 연장 한다고 발표. 이러한 정부의 발표는 단기적으로 경기 위축을 불러올 수 있으나, 코로나 확진자 수 확산을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부각. 이 영향으로 코로나 19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보다는 코로나 이후 매출 증가 기대가 높은 온라인 기반 기업들과 치료제 및 백신 관련 소식에 기반한 제약, 바이오 업종이 강세를 보인 반면, 사회적 거리 확대 여파로 상대적인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리조트, 항공 업종은 부진을 보이는 등 종목, 업종별 차별화가 뚜렷해진 경향

지수가 강세를 보였으나, 국제유가는 OPEC+의 감산 종료 시한(3/31) 이후 사우디의 증산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여기에 사회적 거리 기간 연장에 따른 수요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자 급락하는 등 상품시장이 약세를 보였으며, 외환 시장은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엔화, 달러화가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 미 국내 금리도 경기 침체 가능성이 부각되며 장기물 위주로 하락하는 등 위험자산 회피 현상은 지속. 이렇듯 여타 금융시장은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았으나, 주식시장은 현재의 위험보다는 미래의 희망을 기반으로 한 수혜 업종이 강세를 보이며 상승한 점이 특징. 이러한 변화를 감안 주식시장은 종목별 차별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

S&P500와 구글 트렌드(coronavirus)



자료: 구글,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락률(%)	Close	D-1	지수종락률(%)	Close	D-1
KOSPI	1717.12	-0.61	홍콩항셍	23175.11	-1.32
KOSDAQ	542.11	+3.69	영국	5563.74	+0.97
DOW	22327.48	+3.19	독일	9815.97	+1.90
NASDAQ	7774.15	+3.62	프랑스	4378.51	+0.62
S&P 500	2626.65	3.35	스페인	6659.90	-1.74
상하이종합	2747.21	-0.90	그리스	558.70	+1.43
일본	19084.97	-1.57	이탈리아	16872.41	+0.3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사,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MS +7.03% 급등

줌 비디오(-0.54%)는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연장으로 장 초반 10%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으나,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결국 하락 마감 했다. 특히 무료 사용자가 급증해 실적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점이 하락 전환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진단 키트 관련 시간 단축 수혜 업종인 에봇(+6.41%)은 강세를 보였으며, 백신과 관련 임상을 9월에 진행한다고 발표한 J&J(+8.00%)는 급등 했다. 머크(+7.28%), 화이자(+5.73%) 등 여타 제약 업종도 동반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치료제 임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길리어드사이언스(+4.23%)이 강세를 보이자 레제네르(+5.22%)도 동반 상승했으며 바이오젠(+6.53%), 버텍스(+6.76%) 등 바이오 업종도 급등했다.

이런 가운데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들인 MS(+7.03%), 알파벳(+3.25%), 아마존(+3.36%) 등도 강세를 보였으며, 스트리밍 회사인 넷플릭스(+3.88%)도 강세를 보였다. 특히 MS 가 클라우드 사용량이 775% 급증 했다고 발표했으며, Windows Virtual Desktop 제품이 3배 이상 성장 했다고 언급한 이후 MS의 상승폭이 컸다. 한편, 월마트(+5.12%), 디즈니(+3.53%) 등도 강세를 이어갔다. 이에 힘입어 마이크론(+2.39%), AMAT(+4.99%) 등 반도체 업종도 동반 상승 했다. 이 결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80% 상승 했다. 반면, 크루즈 운행이 지연됨에 따라 실적 부진 우려가 부각된 카니발(-11.17%)이 급락했으며, 매리어트(-3.41%) 등 호텔 업종과 보잉(-6.00%), 델타항공(-2.98%) 등 항공 업종 또한 부진했다. 여기에 국제유가가 급락한 여파로 옥시덴탈(-5.17%) 등 셰일 에너지 기업들도 부진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34%	대형 가치주 ETF(IVE)	+2.92%
에너지섹터 ETF(OIH)	-4.40%	중형 가치주 ETF(IWS)	+1.93%
소매업체 ETF(XRT)	-0.03%	소형 가치주 ETF(IWN)	+1.51%
금융섹터 ETF(XLF)	+1.90%	대형 성장주 ETF(VUG)	+3.35%
기술섹터 ETF(XLK)	+4.24%	중형 성장주 ETF(IWP)	+2.91%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2.25%	소형 성장주 ETF(IWO)	+2.72%
인터넷업체 ETF(FDN)	+2.70%	배당주 ETF(DVY)	+2.46%
리츠업체 ETF(XLRE)	+2.60%	신흥국 고배당 ETF(DEM)	+1.37%
주택건설업체 ETF(XHB)	+0.59%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1.31%
바이오섹터 ETF(IBB)	+3.94%	미국 국채 ETF(IEF)	+0.23%
헬스케어 ETF(XLV)	+4.68%	하이일드 ETF(JNK)	+1.03%
곡물 ETF(DBA)	-0.71%	물가연동채 ETF(TIP)	-1.60%
반도체 ETF(SMH)	+3.92%	Long/short ETF(BTAL)	+1.7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지수보다는 종목으로

MSCI 한국 지수 ETF 는 2.21% MSCI 신흥 지수 ETF 는 1.65% 상승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인 79 계약 순매수한 가운데 2.90pt 상승한 233.20pt 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223.0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FDA 가 코로나 19 치료를 위해 말라리아 예방약인 클로로퀸의 긴급 사용 허용을 발표하고,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96.5%~99.9% 효율로 바이러스를 흡수 및 비활성화 할 수 있는 나노 물질을 개발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코로나 공포 심리가 완화되며 장중 한 때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등 투자심리가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세계 보건기구(WHO)가 코로나 19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부 약품의 자료가 있다고 주장하며 치료제가 없다는 공포 심리를 완화 시켰다.

이 결과 미 증시에서 경기 침체라는 부정적인 요인에 반응을 보이기 보다는 코로나 이후 수혜 업종 즉 온라인 기반 대형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하게 만든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오늘 한국 증시에서 관련 업종의 강세를 이끌 것으로 예상돼 한국 증시는 긍정적이다. 다만, 여전히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지수는 매물 출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제조업 지표 급락

2 월 미국 잠정주택 매매는 지난달 발표(mom +5.2%)를 하회한 전월 대비 2.4% 증가에 그쳤으나, 예상(mom -1.6%)을 상회했다.

3 월 달러스 연은 지수는 전월(1.2)이나 예상(-6.0)을 크게 하회한 -70.0 으로 발표되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생산지수(16.4→-35.3)는 물론 신규수주(8.4→-41.3), 설비가동률(11.3→-33.4), 고용 지수(-0.9→-23.0) 등 모든 세부 항목이 급락했다. 이는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달러스 지역 세일 기업들의 심리가 위축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급락 지속

국제유가는 OPEC+의 감산 기간 종료(3/31)를 앞두고 사우디의 산유량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자 장중 한 때 20달러를 하회하기도 하는 등 급락했다. 여기에 미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의 연장 등으로 수요 부진 우려가 높아진 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한편, 미국이 최근 사우디와 국제유가 문제를 논의한 데 이어 오늘은 러시아와 논의한 점을 감안 관련 정책의 변화 기대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아직은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달러화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연장되자 미국의 단기적인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졌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엔화 또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졌다는 점이 부각되며 하락했다. 특히 달라스 연은지수가 사상 최대치로 폭락하는 등 경제지표 부진 또한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피치가 영국의 신용 등급을 부정적인 전망으로 하향 전망 하는 등 각국의 신용리스크 또한 부담을 줬다.

금은 달러 강세 여파로 소폭 하락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경기 침체 및 달러 강세로 하락 했다.